

소득은 늘었다는데 왜 살림은 그대로일까 —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읽는 법

현재 본문: 2026-10-09 개정 · 기존 발행일 기록 2026-06-02 ·
판본 2026-10-09 판 · 웹 본문 <https://gaon-lab.kr/research/middle-class-anxiety>

독자의 질문

소득이 늘었다는 통계를 보고도 살림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건 왜일까요?

핵심 답

‘소득이 늘었다’와 ‘살 수 있는 양이 늘었다’는 다른 말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2분기 가구 평균 소득은 금액으로는 4.5% 늘었지만, 물가 상승분을 덜어 낸 실질로는 1.5%였습니다.

발견 3가지

공식 통계

1. 소득은 금액(명목)으로 4.5% 늘었지만, 물가를 덜어 낸 실질로는 1.5% 늘었습니다. 둘의 차이가 약 3.0%p인 것이 ‘늘었는데 여유가 없다’는 느낌의 한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GAON-LAB 계산

2. 평균 소득이 늘어난 약 23만 원 가운데 약 16만 원은 연금·수당 등 이전소득(+20.4%) 몫이고, 일해서 번 근로소득은 +0.8%였습니다. 공식표의 금액 차이로 계산한 값입니다.

가상 사례

3. 월급 300만 원이 4.5% 오르면 통장에는 13만 5천 원이 더 들어오지만, 작년 물가로 환산한 구매력은 약 4만 원어치만 늘어납니다.

같은 소득 통계, 어떤 숫자를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2026년 2분기)

소득 전체 (명목, 금액 그대로) **+4.5%**

소득 전체 (실질, 물가를 덜어 낸 값) **+1.5%**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6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2026-08-27 공표). 소득원별 분해(근로·사업·이전)는 본문
‘결과’의 표에 금액 차이와 함께 있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년 2분기(4~6월) 가계동향조사,
2026-08-27 공표 · 소비자물가 4~9월 수치와
출처 확인일 2026-10-09

이 PDF는 웹 본문과 같은 판본(2026-10-09 판)입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월급이 올랐다는 뉴스를 보고도 장바구니가 가
법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글은 한 가
지 질문에 답합니다. ‘통계에서 소득이 늘었다는
말은,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늘었다는 뜻일까?’

짧게 답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 통계
에는 금액 그대로 비교한 숫자(명목)와 물가 상
승분을 덜어 낸 숫자(실질)가 함께 나오고, 둘의
차이가 클수록 ‘늘었다’는 말과 체감 사이가 벌
어질 수 있습니다.

내 지출 기록을 가격 변화와 사는 양으로 나눠
읽는 방법은 별도 글 「물가가 오르면 내 지출은
얼마나 늘어난 걸까 — 지출 기록 읽는 법」 에서

다릅니다. 이 글은 소득과 물가 통계를 읽는 데
집중합니다.

먼저 용어 네 가지

용어
명목

뜻
물가를 고려하지 않고 금액 그대로 비교한 값

이 글에서 읽는 법
통장에 찍힌 숫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용어
실질

뜻
물가가 오른 만큼을 덜어 내고 비교한 값

이 글에서 읽는 법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늘었는지

용어
전년 동분기 대비

뜻
작년 같은 3개월(분기)과 비교한 증감률

이 글에서 읽는 법
계절 차이를 피하려고 같은 분기끼리 비교합니다

용어

가계동향조사

뜻

국가데이터처(통계청)가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묻는 표본조사

이 글에서 읽는 법

전국 평균이며 내 가구의 값이 아닙니다

자료와 조사 대상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8월 27일에 2분기(4~6월)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이 글은 그 보도자료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읽습니다. 숫자는 모두 가구당 월평균이고, 증감률은 작년 같은 분기(2025년 2분기)와 비교한 값입니다.

가구당 월평균, 2026년 2분기 (전년 동분기 대비)

항목

소득

월평균 금액

529만 5천 원

증감률

명목 +4.5%

항목
소득 (물가 반영)
월평균 금액
—
증감률
실질 +1.5%

항목
처분가능소득
월평균 금액
423만 5천 원
증감률
명목 +5.2%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이자 등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돈(비소비지출)을 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숫자들은 매달 전국 약 7,200가구를 조사하는 표본조사에서 나온 것으로, 1인 이상 일반가구(농림어가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이 없는 가구까지 포함해 전체 가구로 나눈 평균이고, 이 분기 표본가구는 평균 2.16명, 가구주 평균 나이는 53.7세였습니다.

방법 — 명목·실질 역산과 소득원별 금액 차이

1. 명목 증가율은 올해 금액 $\div$ 작년 금액 - 1입니다. 조사 결과가 이미 증가율을 제공합니다(소득 +4.5%).

2. 실질 증가율은 조사 쪽에서 소비자물가지수(2020년 기준)로 물가를 덜어 내고 계산해 발표한 값입니다(소득 +1.5%). 이 글은 두 증가율에서 물가 반영분을 거꾸로 계산합니다: $1.045 \div 1.015 \approx 1.030$.

3. 소득원별로는 보도자료 표 1의 2025년·2026년 금액 차이를 계산합니다. 소득원 합계가 총액과 맞지 않는 부분은 반올림 잔차로 따로 표시합니다.

회귀분석이나 인과 추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 계산은 발표된 숫자를 나누고 빼는 산수이며, ‘왜 늘었는가’의 원인을 밝히는 분석이 아닙니다.

결과 — 명목과 실질, 그리고 소득원별 차이

첫째, 가구 평균 소득은 명목 +4.5%, 실질 +1.5%로 3.0%p 차이가 납니다. 물가 반영분은 약 3.0%로 역산됩니다.

소득원별 가구당 월평균 (단위: 만 원, 보도자료 표 1의 천 원 단위를 환산해 반올림)

소득 종류 근로소득 (급여 등)
2025년 2분기 319.4
2026년 2분기 321.8
늘어난 금액 +2.4
증가율(명목) +0.8%

소득 종류 사업소득
2025년 2분기 94.1
2026년 2분기 97.7
늘어난 금액 +3.6
증가율(명목) +3.8%

소득 종류 재산소득 (※)
2025년 2분기 5.5
2026년 2분기 6.7
늘어난 금액 +1.2
증가율(명목) +21.3%

소득 종류 이전소득 (연금·수당 등)
2025년 2분기 77.3
2026년 2분기 93.1
늘어난 금액 +15.8
증가율(명목) +20.4%

소득 종류 비경상소득 (※)
2025년 2분기 10.0
2026년 2분기 10.2
늘어난 금액 +0.2
증가율(명목) +1.2%

소득 종류 합계 (소득 전체)
2025년 2분기 506.5
2026년 2분기 529.5
늘어난 금액 +23.0
증가율(명목) +4.5%

※ 보도자료가 상대표준오차가 높아 이용에 유의하라고 표시한 항목입니다. 소득원별 늘어난 금액을 더하면 +23.2만 원으로, 합계의 +23.0만 원과 0.2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는 반올림 잔차입니다.

둘째, 늘어난 23.0만 원 가운데 이전소득이 15.8만 원으로 약 69%를 차지합니다(GAON-LAB 계산). 조사 결과에서는 정부·공공기관에서 받는 공적이전소득이 27.6% 늘었고 가구 사이에 오가는 사적이전소득은 0.2% 줄었습니다. 반면 금액 비중이 가장 큰 근로소득은 +0.8%였습니다. +20.4%는 이전소득 자체의 증가율이며, 전체 소득 증가에 대한 기여도나 개인의 월급 상승률이 아닙니다.

생활 속 가상 사례 — 월급 300만 원이 4.5% 오르면

실제 조사 결과가 아닌 가상 계산입니다

아래 월급 300만 원은 설명을 위해 만든 가정입니다. 물가 반영분 약 3.0%는 위 공식 숫자(명목 4.5%, 실질 1.5%)에서 거꾸로 계산한 근삿값($1.045 \div 1.015 \approx 1.030$)이며, 국가데이터처가 따로 발표한 값이 아닙니다. 같은 분기(4~6월) 소비자물가지수의 월별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2.6%, 3.1%, 3.2%)을 단순 평균하면 약 3.0%(2.97%)로 역산값과 가깝습니다. 이는 같은 계열 물가지수로 해 본 근사 비교일 뿐 공식 분기 물가상승률이나 독립된 검증이 아닙니다.

입력 → 계산 → 결과

단계

① 입력

계산

작년 월급 300만 원, 올해 4.5% 인상

결과

올해 월급 313만 5천 원

단계 ② 물가 반영분
계산 공식 숫자에서 역산
결과 약 3.0% (1.030배)

단계 ③ 구매력 환산
계산 $313\text{만 } 5\text{천 원} \div 1.030$
결과 작년 물가 기준 약 304만 원

단계 ④ 실질 증가
계산 $304\text{만 원} - 300\text{만 원}$
결과 약 4만 원 (약 1.5%)

해석: 통장에는 13만 5천 원이 더 들어오지만, 작년과 같은 물건을 살 수 있는 힘은 약 4만 원어치만 늘었습니다. 나머지 약 9만 원은 오른 물가가 가져간 셈입니다.

반대로 월급 인상률이 물가 반영분보다 낮으면 월급이 올라도 구매력은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상률이 2%라면 $1.02 \div 1.03 \approx 0.990$ 이어서, 약 1% 줄어든 것으로 읽습니다.

물가·심리 통계를 함께 볼 때 주의할 점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가 자주 사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모아 만든 지수입니다. 2분기 조사의 실질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2020년 기준)로 계산했다고 조사 결과에 적혀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페이지에서 확인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이었고, 이 글을 갱신한 2026년 10월 9일에는 같은 페이지에 9월 수치(전년 동월 대비 2.9%)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2분기(4~6월) 소득 통계와 8월·9월 물가는 기간이 달라서, 서로 빼거나 나누어 ‘내 체감 물가’를 계산하는 데는 쓸 수 없습니다. 방향을 가늠하는 참고 자료로만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월 중 104.5로 전월보다 2.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 지수는 사람들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전망하는지 묻는 심리지표이며, 소득이나 지출 금액을 잴 숫자가 아닙니다. 이

지수가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계층의 불안이 커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 소득을 점검하는 방법

공식 통계는 전체 평균을 보여줄 뿐 내 가게를 진단해 주지 않습니다. 아래는 통계가 아니라 스스로 해 볼 수 있는 점검입니다.

- 올해 월급이나 수입이 작년 같은 달보다 몇 % 올랐는지 계산합니다(올해 ÷ 작년 - 1).
- 그 숫자를 물가 상승률과 견칩니다. 비교용 물가는 위 물가 페이지의 ‘최근 월별 동향’ 표에서, 내가 비교한 올해 달과 같은 달의 ‘전년동월비’를 씁니다. 내가 주로 사는 품목의 물가는 평균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합니다. 계산 순서는 Insight 「내 월급 인상률은 물가를 따라갔을까 — 5분 점검법」에 있습니다.
- 월급 외에 연금·수당 등으로 받는 돈이 있다면 따로 적어, 월급의 증가와 섞이지 않게 합니다.
- 통장에 남는 돈(들어온 돈 - 나간 돈)이 작년 같은 달보다 늘었는지 확인합니다.

대안 설명과 한계

‘늘었는데 여유가 없다’는 느낌에는 소득·물가 외의 설명도 가능합니다. 이자·세금·보험료 같은 비소비지출, 내가 자주 사는 품목의 물가가 평균과 다른 경우, 가구 구성이나 연령이 달라진 경우(이 분기 표본 평균 가구원 수는 2.19명에서 2.16명으로 바뀌었습니다)가 그렇습니다. 이 글은 어느 것이 원인인지 가리지 않습니다.

가계동향조사는 표본조사여서 표본오차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서도 상대표준오차가 높은 항목에는 * 표시를 해 해석에 유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이 글의 숫자는 전국 가구 평균이며, 특정 소득 구간이나 개별 가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통계는 조사 대상과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소득·지출을 묻는 표본조사, 소비자물가지수는 대표 품목의 가격 변동을 잰 지수, 소비자동향조사는 인식과 전망을 묻는 심리조사입니다.

이 글은 ‘중산층’을 따로 집계하지 않고 가구 평균을 봅니다. 통계청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중산층 통계가 없다고 안내하며, 균등화 개인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을 ‘중위

소득계층'이라 부르는 구분은 있습니다. 가상 사례와 역산한 물가 반영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이며, 실제 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소득 통계만으로 체감 불안의 원인을 하나로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글의 변경 이력

맨 위에는 현재 본문이 개정된 날짜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기존 발행일 기록'은 이전부터 표시해 온 날짜이며, 이 글의 현재 통계와 결론을 처음 공개한 날을 뜻하지 않습니다. 처음 공개한 날은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2분기 조사 결과의 공표일(2026-08-27)은 통계 자료의 날짜이고, 이 글의 개정일과 다릅니다. 본문이 바뀐 날짜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09-18: 2026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등 공식 통계를 인용해 본문을 다시 썼습니다. 그 전 판은 공식 통계를 인용하지 않은 요약문이었습니다. 2분기 조사 결과는 2026-08-27에 공표됐습니다.
- 2026-10-09: 질문과 답을 앞에 두고 용어 풀이, 계산 사례, 소득 종류별 표를 추가했으며, 숫자를 조사 결과 보도자료 원문과 다시 대조

했습니다. 같은 숫자를 다루던 지출 글과 역할을 나눴고, 제목은 글이 다루는 질문에 맞게 바꿨습니다(주소는 그대로입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2026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6-08-27, 보도자료 PDF 포함)

https://mods.go.kr/board.es?act=view&bid=214&list_no=446633&mid=a10301010000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8월 전년 동월 대비 3.1%·9월 2.9% 확인일 2026-10-09, 페이지는 새 달 자료로 바뀝니다)

<https://mods.go.kr/cpidtval.es?mid=b70201010000>

한국은행, 「2026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2026-08-25 등록)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501/view.do?menuNo=200690&nttId=11064042>

통계청, 「중산층 통계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게시일 미표시)

https://mods.go.kr/board.es?mid=b80503000000&bid=11554&act=view&list_no=331334